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발행인 : 이 원 호

2. 하나 되는 기쁨 (춘천기독청년수련회)
3. 통일한국 (허문영 박사)
6. 실사구시의 교회 (서춘천교회)
9. 물의 특성과 정신요법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2007년 3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0호**

그대 나라를 사랑하는가

-도산 안 창 호-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설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

그대는 매일 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밥을 먹어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 잔다.

낙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부패는 패망의 근본이요, 착실은 성공의 기초이다.
서로 사랑하면 살 것이요, 서로 싸우면 죽을 것이다.
매끈한 돌이나 거친 돌이나 다 제각기 쓸모가 있는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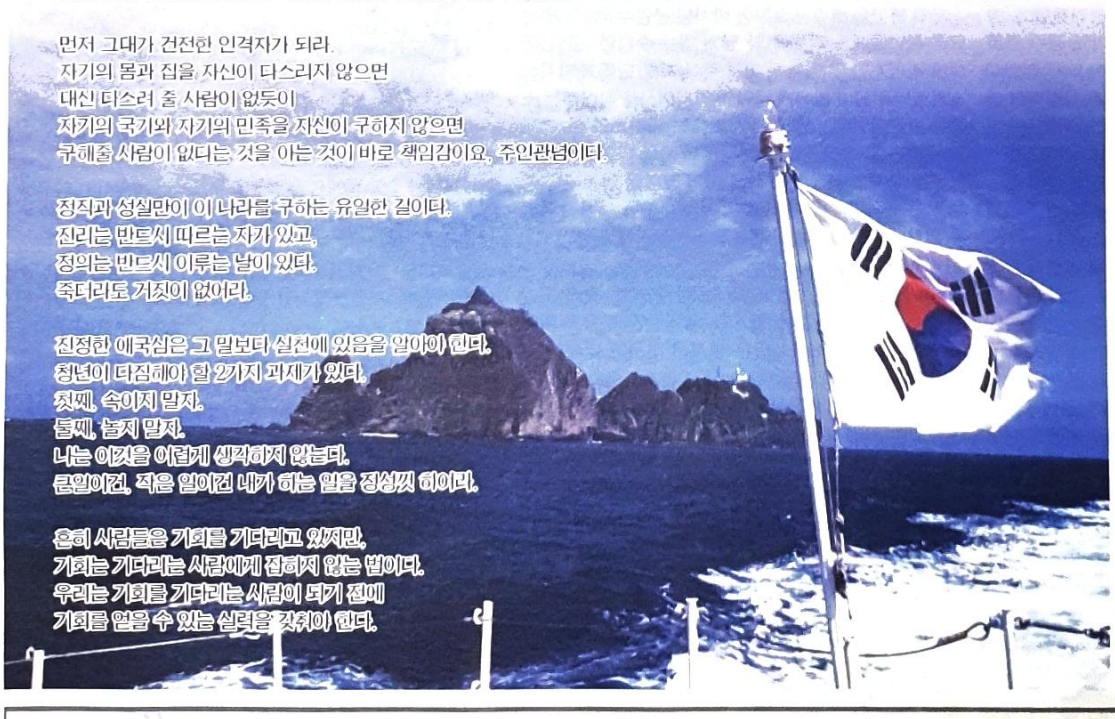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리고 마음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이 인물이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먼저 그대가 건전한 인격자가 되라.
자기의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대신 다스려 줄 사람이 없듯이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이다.

정직과 성실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진정한 애국심은 그 말보다 실천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청년이 타파해야 할 2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속이지 말자.
둘째, 놀지 말자.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가 하는 일을 정성껏 하여라.

흔히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지만,
기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잡히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전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달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나라와 민족

2007년은 'Again 1907'로 부흥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해이다. 또한 3월은 삼일절을 기념하여 민족과 통일을 위한 기도의 달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예비 된 사람이 지도자로 설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자!

· 2014 동계올림픽과 G5계획

강원도의 발전과 선교적 발판을 이룰 수 있는 동계올림픽이 무산됨과 금권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지 않도록, 특히 춘천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G5계획이 춘천시와 강원개발공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아름답고 멋진 춘천을 만들도록 기도하자!

· 새롭게 조직되는 성시본부

이사진의 구성과 함께 춘천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금요기도회가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중보기도의 많은 일꾼들이 함께 모이도록, 그래서, 춘천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자!

· 각 단체들의 다양한 훈련

아버지학교와 베드로선교센터의 MP 훈련, 목회자 철야기도회, 사모기도회, 교회들마다의 훈련 등등 이러한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 부활절 준비

사순절 기간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잘 준비하고, 춘천기독교연합회가 준비하는 십자가대행진을 위해 기도하자!

Ye 예치과

춘천예치과는 고객님의 기대와 사랑을 가슴 한가득 품고
고객을 가족처럼 연인처럼 생각하는 감동 서비스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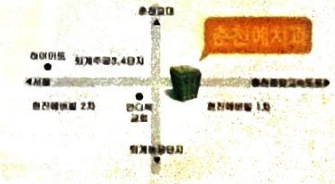
-춘천 예치과 가족일동-



Brand of the Year 2006 'BEST OF THE BEST'

2006 브랜드 대상수상







춘천에도 Ye 치과가 있습니다! Tel:033)262-2078~9 Fax:033)262-2076 www.ccye.co.kr

특 집

하나 되는 기쁨

'춘천기독청년연합 수련회를 다녀와서'

차 광 빈(주향교회)

춘천의 지역 교회에 소속한 청년들의 모임인 춘천기독청년포럼 주최로 지난 2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하나 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가평 승동교회 수양관에서 겨울수련회가 개최됐다. 2박 3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함으로써 많은 것을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일깨우는 깊은 감동의 시간이었다.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른 교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고, 그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 겨울수련회는 증요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타 교회 청년들과의 연합수련회라서 좀 낯설긴 했지만 수련회를 마치고 난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그 기쁨과 감동을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연합'이라는 것을 그저 쉽게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강사로 초청되신 이등현 목사님(경기도 광주 평화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나의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의 선배들은 춘천 성시화의 비전을 꿈꾸며 오래 전부터 어떻게 하면 춘천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씨름하면서 교회 연합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신앙과 비전을 잘 이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관심했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지체들이 하나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가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느꼈다고 말했다. 연합수련회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이런 것이었던가! 200여명의 지체가 참여하여 은혜를 받은 데는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닐 것이다.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청년포럼임원들이 미리부터 모여서 기도와 행정적인 준비를 충분히 하였기에 처음 열린 연합수련회였지만 기대 이상으로 끝날 수 있었으리라!

수련회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권기찬 목사님의 (예담교회) 개회예배 말씀을 처음 시작으로 하여 서로를 알아 갈수 있는 '오픈 마인드(Open Mind)', 그리고 'QT'와 'CBS'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체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컨티넬탈 싱어즈와 소리엘의 은혜로운 찬양은 신선함과 영감을 느끼게 했고, 집회 전 제이락의 열정적인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었다.

저녁 은혜의 시간에 선포된 이등현 목사님의 탁월한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우리 영혼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케 하였으며, "춘천의 소망과 민족의 부흥으로 살라"는 메시지는 많은 지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품게 만들었다. 말씀 후에 이병철 목사님(주향교회)이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셨는데 평생 그렇게 많은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 정말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전체 특강을 해주신 허문영 박사님(통일수석연구원)은 요즘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기 힘든 주제인 "통일"에 대해서 쉽지만 무게 있게 전해 주어 자칫 민족과 역사에 소홀하기 쉬운 우리에게 통일과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선택특강 시간에는 데이트와 성, 기독교 세계관, 리더십, 찬양, 목상, 선교 등의 다양한 주제로 청년들 각자가 자신의 관심에 따라 고민을 털고 궁금증을 푸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폐회 예배는 엄기홍 목사님(온누리교회)이 은혜롭게 마무리해 주셨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타이트한 관계로 휴식 시간이 적이 조금은 시간에 쫓기고,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것들이었다. 처음에는 마치 맞춰지지 않는 퍼즐과 같은 불안함과 어색함이 있었지만, 2박3일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갔고 완성의 그림을 보는 듯해서 큰 기쁨을 느꼈다. 짧았지만 너무나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이 동계 청년 연합수련회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더욱 도와힘 수 있는 아름다운 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

춘천기독청년 화이팅~수련회를 통하여 하나 된 우리~♥ 앞으로 함께해요!!
-나눔교회 김기동-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되는 기쁨을 앞으로도 이어나가길 기도합니다.
-예담교회 이지혜-

아쉬웠다. 왜? 나의 딸 신애가 참석치 않아서. 좋았다. 왜? 더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순복음춘천교회 김현 전도사-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합모임을 통하여 기독청년들이 교제하고 성장해서 성시화의 주역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연합청년모임~ 강추!!
-순복음춘천교회 엄정숙-

춘천시 청년 연합수련회를 통하여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제 첫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모임을 통하여 춘천 성시화의 열매가 맺히길 기도합니다.
-순복음춘천교회 박혜영-

하나 되는 참된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여도, 흩어져도 늘 복덩어리로서의 삶을 사는 춘천 기독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부교회 김보미-

하나님께서 춘천 땅에서 청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이 연합 모임의 끈이 더욱 강한 연결고리가 되어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주향교회 김유림-

너무나 은혜스러운 수련회였어요! 은혜충만!!
-안디옥 표동진 부장-

우리교회 청년부 안에서의 개구리가 될 뻔한 저의 시야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타 교회와의 화합으로 "주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GBS&QT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향교회 정다운-

많은 도전이 있었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더 많은 준비로 다음에는 더 좋은 수련회를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명화교회 박세형 전도사-

하나 되는 기쁨 충만히 누리는 수련회였어요.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온누리교회 엄기홍 목사-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ir
(클럽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나래디자인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춘천성시합창단은 파트별 0명씩을 초대합니다. 자격은 찬양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분이면 됩니다.

해발 4000미터 안데스의 산삼 마카 MACA
현대인들을 위한 고대의 선물! 마카의 신비를 느껴보십시오!
◆ 정력감퇴 해결
◆ 노화방지 및 젊음유지
◆ 불임증에 효과
◆ 여성 호르몬 밸런스 조절
◆ 스트레스 해소
◆ 탄력있고 건강한 피부유지
◆ 면역력과 집중력을 높임
※남녀 판매직원채용
월 드 상 사 대표 안 순 복
위치: 안천오거에서 하주골방향, 구)안천당 건너편
춘천시 후평동 733-1 ☎033)252-3439 HP 010-9485-9099

통일한국! 화해와 일치의 영성대국(靈性大國)



이번 시간에는 한기총 통일선교대학학장과 평화한국준비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허문영 박사(현,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와의 인터뷰입니다.



허문영 박사는 춘천이 고향으로 일찍이 강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춘천 성시화에 대한 비전을 품고 많은 젊은 활동가들을 양성하였다. 1992년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북한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21세기 복음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도록 도전하며, 한기총 통일선교대학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통일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통일한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건설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통일한국건설의 주도적 세력들을 연결하는 '평화한국' 창립을 준비 중에 있다. 통일은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며, 화해와 용서, 일치와 협력을 통한 영성(靈性)대국건설로 이어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는 그의 비전을 들어보자.

현재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로 계속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북한 핵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역사와 한반도의 주관자가 되신다. 2002년부터 시작된 북한 핵문제는 1997년 IMF경제위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싸인이라 할 수 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말, 부정부패, 음란죄를 책망하시면서 성결과 경건 그리고 정직한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다. 2007년도가 시작되면서 한반도정세는 군사적 충돌까지도 가능한 불안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극적으로 타결된 2.13합의와 남북장관급회담재개로 인해 한반도 안보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고 평화적 관리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북한 핵문제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초기단계의 이행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데에 주력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제관계와 남북관계를 병행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문제이다. 올해 들어 한국교회는 'Again 1907'과 'Transformation Korea'를 통해 기도와 회개운동을 전개했다. 목회자와 평신도 그리고 청년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땅의 죄악을 회개하고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회개와 기도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2.13합의를 주셨다고 생각한다.

분단이후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북한과 통일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에서 명심해야 할 올바른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민족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도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에게 있어서는 더욱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균형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우익 극단인 파시스트, 좌익 극단인 막시즘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상황의 이중성과 구조의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균형적 시각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셋째,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는 대륙의 힘이 강할 때에는 대륙의 영향력 하에 머물렀고, 해양의 힘이 절대적일 때에는 해양의 속국이 되었다. 그리고 대륙과 해양의 힘이 팽팽하게 대결할 때에 한반도는 분단국이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한반도가 대결과 전쟁으로 퇴락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기독공동체에 의해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태평양 시대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 나아가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한국을 위해 그동안 통일선교대학을 통하여 통일선교사를 양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는 단체들의 연대기관인 '평화한국'을 창립 중에 있는 것으로 들었다. 평화한국의 창립배경은?

언젠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나서 연구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만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면서 마음에 큰 깨달음을 주셨다. 한국현대사를 보면 그 시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던진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았다. 해방 후 남한은 독립 세대였던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고 북한은 항일빨치산을 이끌었던 김일성이 정권을 잡았다. 이후 산업화 세력이었던 육사 8기의 박정희, 육사 11기 전두환, 노태우, 민주화세력이었던 386과 노무현대통령은 그 시대를 위해 자신들을 던졌던 세력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역사의 주도권을 맡기셨다. 이제는 우리 기독인 중에 통일한국을 건설하고 이끌어갈 주도세력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음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기독인들에게 역사의 주체가 되게 할 것이다. 또한 통일한국은 평화가 토대로 되어야 한다. 지역, 계층, 이데올로기, 세대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사분오열된 남한사회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태평양시대 평화와 화해의 주도적 세력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신 이러한 감동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였더니, 여러 분야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등일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다.

평화한국에는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일정과 중점사역은 무엇인가?

2006년 6월 13일 강변교회에서 첫 평화한국 월례회를 가진 후,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오다가 2006년 12월 13일 '평화한국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4월 17일 '평화한국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평화한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20세기가 목회자 중심의 사역이 전개되었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평화한국은 목회자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도자인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평화한국이 추구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국사회를 개혁하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연구, 정책제시, 차세대교육, 실천, 기도운동 등의 5가지의 중점사역을 전개할 것이다. 평화한국은 서울, 부산, 광주, 춘천, 천안 등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해외도 망라하는 평화기도네트워크를 조속히 가동할 예정이며 평화한국 아카데미도 시작할 계획으로 있다. 특히 평화기도네트워크는 평화한국운동의 핵심적 사역으로 영적 원동력을 제공해줄 것이다. 전국을 순회하며 강의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각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공통점은 대부분의 기도회가 화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용사들을 일으키시고, 통일을 예비해 오셨다는 확신이 든다.

통일한국의 이상적 모습에 구체적인 비전이 있는가?

통일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루어질 것인데, '영성대국'이 되기를 바란다. 일본은 돈을 대세우고, 중국은 사람의 많음으로 무기를 삼는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영성강국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이다. 영성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나라를 목표로 한다. 첫째, 모범한국(Bible Korea/Model Korea)이다. 통일한국은 전 세계에 희망을 주는 성경적으로 '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한국(Shalom Korea/Peace Korea)이다. 통일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첨예한 대결이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가운데 주변 4국과 평화의 길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선·후진국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주는 중재자(peace-maker)가 되어야 한다. 셋째, 봉사한국(Mission Korea/Service Korea)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2위의 선교국가로 부상하였다. 중국,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전쟁현장, 동남아시아의 해일현장, 파키스탄의 지진현장 등에서 의료, 식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우리 선교사들의 활약상은 통일한국의 이상적 모델인 봉사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남기실 말씀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사람의 다수나 물질의 풍성함이 유익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시대를 향해 도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성시위에 민족을 세우고 평화를 토대로 한 통일한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한 교회를 찾으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평화한국운동은 성시화운동과 크게 다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시화운동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때에만 복음으로 통일되는 평화한국은 가능한 것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과 희생으로 일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싶다.





일시: 2007년 2월 16일 장소: 통일연구원
진행, 글 정리 : 정재호 사진: 김이경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성지순례(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춘천제일장로교회 한 남 수 장로

2007년 1월 2일 춘천제일장로교회 여행선교회 주관으로 성지순례 팀이 구성되고, 두바이를 경유하여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지방으로부터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과정을 답사할 수 있는 순례 일정이 확정되었다.

존경하는 박상호 담임목사님과 19명이 한 팀이 되어 워크 샵을 통해 사전 지식을 챙기고 기도로 준비하였다. 목사님의 "성지순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축복의 학습여행으로써 성지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확신을 주는 광야에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기대함으로 빔잠을 설치기도 했다.

순례 첫째 날 : 두바이

1월 10일 오후 4시, 흥분된 마음으로 출발감사예배를 드린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23시55분 EK-323편으로 두바이로 향했다. 11일 05시35분경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기 전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면세점을 구경하였는데 각 상점마다 고가의 물품들이 즐비하게 진열된 것을 보면서 오일달러 가치의 위력을 새삼 느끼게 됐다.

순례 둘째 날 :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카타콤

11시 30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공항에 착륙. 한국인 가이드를 만나 인천 공항을 떠난 지 19시간(환승대기시간까지 포함)만에 이집트의 첫 순례지 '퀘이트베이 요세의 방문으로 여정을 시작하였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음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 북동단을 차지하고 있고 국토는 나일 강변, 나일 삼각주, 사막, 시나이 반도 등 네 개의 지역으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6배 정도로 국토의 약 97%정도가 사막이다. 인구는 약 5,500만명, 이중 90%가 이슬람교도이고 10%만이 기독교인이다.

알렉산드리아는 지중해에 접한 항구 도시로 알렉산더 대왕의 이집트 정복을 기념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성경의 고센지방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 하던 곳이다. 로마와 아테네와 함께 당대의 3대 도시로서 오늘날도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이곳에는 일명 알렉산드리아의 성채라고도 불리어지는 '퀘이트베이 요세'가 있다. 15세기 초에 걸친 두 번의 대 지진으로 등대가 부서지고 지금은 요세의 성채만이 지중해의 푸른 물만 바라보는 주인 없는 성으로 남아 있다. 정통출애굽의 성지순례는 반드시 이곳을 통해 시작해야 바른 길을 보게 된다고 한다.



마라의 샘

초기 그리스도교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도착했다. 넓은 마당엔 들무덤이 산재해 있고, 지하 계단을 따라 들어서니 벽 좌우편에 관을 넣어두었던 매장지와 벽화 등 당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마가요한기념교회를 방문했다. 교회 내부의 잘 정돈된 기도의자와 원형으로 올라가게 된 강단이 퍽 인상적이었다. 특히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 벽면에 이 교회를 시무했던 50명의 주교 명단이 연대별로 색인 되어 있었다.

순례 셋째 날 : 카이로, 시나이 반도의 신 광야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고대왕국 제4왕조대의 쿠무왕과 그 아들 프레왕, 손자 멘카우레왕의 피라미드 3개가 나란히 놓여있다. 돌 하나의 평균무게가 2~2.5톤이나 되는 돌 230만개가 소요된 이 피라미드는 이집트 내 80여 개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 피라미드 앞의 스핑크스는 무덤을 지키는 수호신인데 높이 20m, 길이 72m의 화강암을 깎아 만들었다. 1517년~1882년 터기 점령 하에 터기 군대의 사격연습 표적이 되기도 했고, 나폴레옹이 스핑크스의 코를 대포로 쏘아 떨어뜨렸다고 하는 설이 있다.

이집트 역사에 파피루스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신성한 식물로서, 5000년 이전부터 이집트인들은 여러 용도로 활용했으며, 이것을 종이로 이용한 것은 기원전 2700년 이전으로 고고학자들은 보고 있다. 대형 파피루스 매장에 들려, 고가의 파피루스를 눈요기 했다.

구 카이로의 에수 피난교회, 모세 기념교회를 방문했다. 에수님은 해롯이 보낸 자객과 이방인들의 위협이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으로 짐시 피할 장소를 찾으셔야만 하셨다. 에수님의 이집트 체류에 관한 성경이야기는 이집트 곳곳에 스며있으며, 구 카이로의 한 지역에 순교자 사르기우스와 바키스를 기념하여 세워진 에수피난교회와 모세의 토라가 발견된 모세기념교회를 본 후 시나이 반도로 향했다.



모세의 떨기나무

수에즈운하의 통과는 헤저 터널을 이용하여 불과 2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모세의 뒤를 따르던 애굽병사들이 수장되는 모습도 볼 사이 없이 버스는 이미 시나이 반도의 신 광야에 들어서 있었다. 정착지는 쓴물을 단물로 만든 '마라의 샘'이 있는 곳. 마라는 수에즈운하 헤저 터널에서 약30km 지점에 소재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옛날의 마라지역이 오늘의 아윤무사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한다. 이집트 말로 아윤무사는 '모세의 우물'이다. 큰 우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물이 말랐고, 또 하나는 흙탕물이 조금 있었다.

마라를 출발하여 1시간 후 홍해로 들어가는 유황온천물이 있는 바닷가에서 잠시 족욕으로 피로를 풀고 자연식 동굴사우나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 이런 곳을 아직 자연 그대로 방치하는 이집트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홍해를 붉게 물들인 노을을 등지고 시내산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났다.

이집트에서 놀란 것은, 첫째 무슨 일이든 팁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행용 가방을 조금만 옮겨 놓아도 팁을 요구한다. 유럽이나 구미보다 더 팁 문화가 강했다. 둘째는 피라미드나 스핑크스의 웅장함이다. 아~ 하는 감탄사가 모두의 입에서 절로 나왔다.

순례 넷째 날 : 시내산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낙타에 몸을 맡기며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갔다. 1시간 정도 후, 낙타 종점에서부터 정상까지 돌로 만든 가파른 770계단을 손전등을 밝히면서 추위와 싸우며 오르고 또 올랐다.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흙 한줌 없는 바위의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성산, 아람어로 자발무사(모세의 산이라는 뜻),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기간 체류하던 시내광야 한가운데 우뚝 서 있다. 이들이 가시고 혀가 뜰 무렵 우리는 모세의 기념교회가 있는 정상을 향했다. 수백명의 인파가 일출을 보기 위해 인산인해로 모여 있었다. 07시 15경 그 장엄한 태양이 구름위로 그 뜨거운 자태를 드러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계명을 받았던 그 때를 생각해본다.

-다음호에 계속-



시내산 정상

영 감리교 춘천지역 장로회 연합헌신예배 광

(춘천 동·서·남·북 지방)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사 43:19)

♣ 일 시 : 2007. 3. 11(주일) 오후 7:00

♣ 장 소 : 평화감리교회(장학리)

1. 모입시다 2. 기도합시다 3. 승리합시다



강사 한 균 목사
(평화교회)



회장 장준홍 장로
(춘천명성교회)

부회장
홍세표 장로(신성)
김석권 장로(중앙)
이효진 장로(안디옥)
김현배 장로(평화)

총 무
김영관 장로(신성)
(011-370-4702)

회 계
이준열 장로(춘천명성)
(016-364-1831)

내 마음에 나의 민족이 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복음주의자

사울이 주님 예수를 만난 후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변화되어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속히 빠져나가라. 이는 그들이 나에 대한 너의 증거를 받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시고 "떠나가라.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노라."고 하셨다(행22:18,21).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회에서의 보내심을 받아 유다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성되게 증거 하였다(행20:21).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리리쿰 근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빠짐없이 선포한 그는 스페인(서반아)으로 여행하고자 한다(롬15:28).

그는 이런 바쁜 일정과 복음을 증거 하는 가운데에도 유다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 각 도시에서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성령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복음의 열정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자 작정하였고(행20:22-23), 그 일을 완수한 후 또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만유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로마에 가고자 했다(롬15:23).

그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표면적 목적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 즉,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이방인 교회들이 기쁨으로 기부한 것의 열매를 확인시키려는 것이었지만(롬15:25-28), 심중은 육체에 따른 자기 친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롬9-11장).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손을 내펼치기 위함이었다.

그의 말을 들어 보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며, 내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를 증거하거니와,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끊임없는 슬픔이 있으니,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으리라."(롬9:1-3)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것이니, 곧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롬10:1)

그의 심중엔 친족 즉, 민족이 있었던 것이다.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복음주의자여야 한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바울아, 힘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 하였듯이 로마에서도 증거 하여야 하리라."(행23:11;27:24)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 즉, 복음으로 세계를 품은 자들이어야 한다.

주님을 위해 규례에 복종하라

우리의 생활은 하늘에 있다(빌3:20). 하지만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왕)을 존중히 여기며 기도해야 한다(벧전2:17). 권력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롬13:2). 그들에게 있는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행23:5). 또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며,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롬13:7).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 보라. "너희는 주님을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혹 총독들에게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잠잠케 하려는 것이라."(벧전2:13-15)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반 백년을 기도해 왔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주님의 손길이 머물 때까지 기득인인 우리가 조국을 위해 정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기도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 먼저 권면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정직함 중에 평온하고 화평한 생활을 영위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전2:1-4)

거룩한 내적 혁명을 이루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민족을 품고 경건함과 정직한 삶의 바탕이 되는 생활 속에서의 영성 혁명이 시급하다.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 속에 점점 존경심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마다 분열의 양상 속에 혜매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흐트러져 있다. 이는 기도의 응답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막상 통일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한 참된 방안이 교회에 전혀 없게 되며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 될게 뻔한 거 아닌가?

이제 민족복음화의 불길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부터 회개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거룩한 내적 혁명이 이뤄져야 한다. 하나 되어야 한다.

88년 전 순교적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 시작된 3월 1일 독립의 함성이 아직도 들리는 듯한 3월에 하늘의 생활을 하는 당신의 마음에 조국이 있는가?

[편집부 이영규]

자격증대비를 위한 자격취득 특별과정 모집안내

21C 복지 사회 건설의 국가정책에 맞추어 이 시대 가장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자격증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에 등록된 민간 시설에서 취득하셔야 보호를 받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본원에서 수료증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입장이기 희실 것입니다. 종로를 위한 연간 계획표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복지분야 자격취득과정 모집안내

과정명	요일	강의시간	정원	입학자격	특전	총수업
노인(케어)복지사	월/화	오후 6시~9시	25	건강한 남/여 58세 이전	수료후 자격증 취득 요양원, 노인병원 실버타운, 종합병원	15주
요양(간병)보호사			20	학력제한 없음, 2급		
심리상담사 2급	화/목	오후 6시~9시	20	고름이심,상담전문기로 활동하실 이	수료후 자격증 취득	15주
장례지도사 2급	목	오후 6시	30	장례업무 전반 관심 갖고 활동할 이 , 종교계지도자	수료후 자격증 취득	15주

전문학사 고졸 및 검정고시자 / 2년 4학기 졸업 후 전문학사수여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2급 전문대졸 이상 / 1년 2학년 이수 후 자격증 취득, 천금10 신택4 파워
보육교사 2급 사이버/ 디지털 대학교 연계 On-Line수업, 학비 저렴 장학혜택 많음.

원 장 김 성 호 목사
부원장 권 영 식 목사

■ 일반분야 모집안내

과정명	정원	요일	수업시간	강 사	특 전	총수업
리더쉽 개발	20	일	오후 6시~8시	김남현 박사 장 계명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과정 단계별 수료증 수여(1, 2, 3단계) ※ 특혜자 고졸자는 자 할수료점 ※ 2월 5일(월) 개강	10주
대체의학 일반사요법	25	토	오후 2시~6시	박찬웅 교수 포항대로 신장병원 원사	기초반 수료 후 자격증반 편입	10주
특시인재 개발교실 (아기씨마)	30	화	오후 7시~10시	최영환 교수 아시아나 인재개발원	수료 후 자격증 취득 3월 15일(목) 개강(토요일 24시간)	8주
레크레이션 교실	30	토	오후 2시~6시	전진관 교수 강원레크레이션 협회장	수료후 자격증 취득	30시간
음악분야	60	토	오후 2시~6시	최원배 교수 [illegible] 박경식 교수 강원대학교 박영호 교수 한림대학교	지휘, 작곡 실익 피아노, 관현악기(Flute, Oboe, Clarinet, Bassoon, Saxophone, Trumpet, Horn, Trombone, Percussion, Violin, Viola, Cello)	6개월

※ 단,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 될수 있으며, 정원70%가 충족되지 않으면 과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본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이력서 사진4매(3×4)
●모 집: 수시모집
●문 의 처: 본원 사무실(춘천 CBS 3층) ☎033-241-8801~2, H.P:011-372-9100, 016-411-1416

교육인적자원부 등록 평생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인 재 한 국 평 생 교 육 원

탐방 I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교회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서춘천교회(이창희 목사)편입니다

춘천의 한 이름다운 교회에서 놀라운 말씀치유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석사동 에머슨 국립박물관 언덕길을 따라 2000여 미터를 올라가면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는 멋스런 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요즘 춘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용히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서춘천교회이다. 서춘천교회의 이창희 목사는 26년간의 목회경험을 토대로 과학적,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접근을 통해 놀라운 말씀치유 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서춘천교회 설립 이후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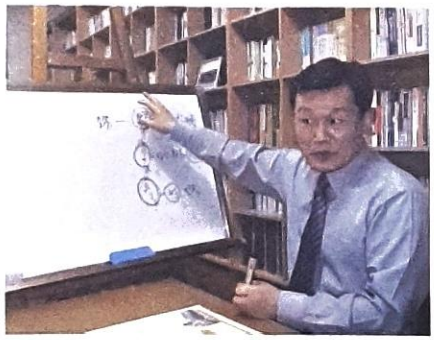
이창희 목사

목원대 3학년 시절부터 교회를 개척할 정도로 전도와 선교에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이창희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춘천에 부임한 것은 1991년 경. 춘천이 주님이 주신 땅임을 믿고 전도를 하던 이 목사는 이동신자(?)가 아닌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된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춘천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이고, 복음에 대해 그다지 열려 있지 않은 곳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방법으로 전도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이 목사는 확신했다고 한다. 그래서 작정기도를 한 다음날, 이창희 목사와 변미애 사모는 직접 발로 뛰며 그들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춘천의 소양로와 근화동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무속인들이었다. 무속인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들이 가진 생각의 흐름을 파악한다면 현대인들의 심성과 욕구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소위 점집과 무당 집을 수도 없이 찾아다니며 6개월 이상 현대인들의 심리를 연구하게 된다. 그래서 무속인 들의 눈을 통해 불신자들이 평소에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이며, 그들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그들의 수준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와 경험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얼마나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빈면에 복음이 그들에게 왜 꼭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 목사가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 말씀의 정확성이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3-4대까지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무속인들 본인과 가족들 중에 불가사의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발견했다고 한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제자훈련



그리고 나서 이 목사는 이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접근을 통해 성경의 주요 요점을 정리한 12주 과정의 제자훈련 성경공부 시스템을 완성한다. 그 이후에 이것을 근거로 평신도 세미나가 시작된 것은 2002년도 경. 평신도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의 주제들을 보면 '과학과 의학을 믿는 현대인들을 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비신자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정신병, 불치병 등은 말씀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는가?'등 극히 생활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다.

서춘천감리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 목사와 변미애 사모로부터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양육과정을 거쳤다.

1998년 이 목사가 현재의 위치에 개척한 이 교회에는 수평 이동해 온 교인들이 없다. 아예 믿음이 없었거나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이 목사를 만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교회 대부분의 교우들은 타 교회 교우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믿음에 대한 확고한 신학과 자부심으로 든든히 무장되어 있다. 이 교회 최준호(극회의원 보좌관)집사는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어 교회에 나가지 않던 중 우연히 이 목사님을 뵙게 되어 왜 하나님을 믿어야하고, 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함께 공유하는 전도법

강원도 춘천에서 놀라운 '실사구시적 복음전도법'이 창안되었다는 소문은 처음 세미나를 참여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갔다. 12주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는 서울, 수원, 오산, 문산, 고양, 제천, 단양 등 수도권과 전국 여러 곳의 목회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창희 목사는 "목회 초기, 성도들이 문제를 갖고 왔을 때 답을 주기보다는 그저 기도하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나 자신이 떠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도 가운데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성경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힌다. 그리고 터득한 보다 효과적인 '실사구시적 전도법'을 조건 없이 후학들과 주위의 목회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이 목사는 힘주어 말한다.

350개 교회가운데 80%가까이가 미자립교회라고 알려진 춘천. 성시화의 시발도시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성적표이다. 그만큼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만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서춘천교회의 성공적 복음전도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복음으로 해답을 찾는 교회, 실사구시(實事求是)적 복음전도로 부패한 세상을 향해 빛으로 소금으로 침투하는 교회, 이창희 목사와 변미애 사모, 그리고 행복한 서춘천교회 교우들이 있기에 춘천은 하나님 안에서 복 받은 도시임에 분명하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JDM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춘천지역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부흥사경회를 합니다.

성경적인 삶을 위한 말씀운동 **사무엘상하 부흥 사경회**

- 주제 : 다윗 스토리!(사무엘상하)
- 일시 : 2007. 3. 19(월)-22(목) 매일저녁7:30
- 장소 : 춘천제일장로교회(성수고등학교 옆) (Tel. 241-4361~2)
- 강사 : 윤 태 호 목사(JDM(에수제자운동) 대표) 기독교 TV 밀레니엄 특강 강사,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선정 10대 청년 설교가
- 대상 : 춘천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 말씀을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 문의 : 춘천시 후평1동 859-1 Tel. 252-3192, 011-9058-3192(구영록 간사)
- 주관 및 주최 : JDM(에수제자운동) 춘천지구

사경 회란?
사경회는 한국 초대교회 부흥의 기틀로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목사의 집에서 7명의 교인이 모여 성서공부를 시작한 것이 처음으로 형식에는 사경반(査經班)이라고 불렀다. 사경회의 동기는 1884년 6월 중국 선교사 J. L. 네비우스 초청세미나에서 채택한 '선교사업방안'에서 비롯되어 한국인 스스로가 성서공부를 하지는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 각 선교지구를 중심으로 사경운동이 널리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1910년부터 사경회에 연평균 6만 4,000명가량이 참석하여 1928년까지 약 20년간에 걸쳐 129만 2,000명이 참석하였다.

통일나눔터

21세기 통일한국운동을 추구하며,
북한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주역은,
바로 기도하는 당신입니다!

통일나눔터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복음을 기꺼이 나누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기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30
*모임장소: 거성침례교회
(011-366-8903, 017-379-0191)

2007 통일한국 영역별 선교대회
일시: 2007. 7. 24~28 (4박5일)
장소: 춘천 강원대학교 캠퍼스
주최: 성서한국
협력: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대기독교수회
*춘천지역의 청년대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역사자료

강원도 교회 창립 약사 (略史 7)



강원기독문화연구소 대표
김 기 태 장로
(춘천중앙감리교회 원로)

1. 한일합방과 조선총독부의 교회탄압

당쟁과 쇄국정책으로 국력이 약해진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총독부 시대로 들어선 때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의 날이며 이날은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이라 한다. 한일합방 25년 전(1885년)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와서 새 문명을 깨우치고 전국 곳곳에 교회를 창립하여 복음의 뿌리를 내리며 민중 계몽과 나라사랑의 얼을 국민들에게 넣어주고 있을 때, 1919년 3.1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당황



1910년 한일합방 직후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조선총독부 고위관리들과 대한제국 황족들의 기념촬영(앞줄 가운데 모자를 벗은 사람이 고종황제. 고종의 오른쪽이 순종, 고종의 왼쪽은 영친왕, 그 옆은 데라우치 초대 조선총독)

한 조선총독부는 강한 식민정책을 펴다가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을 일본화 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1937년 10월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를 제정하여 교육기관과 단체는 물론 교회에서도 예배 전에 이를 먼저 낭독하게 하고, 신사 참배로 우상숭배를 강요하였지만, 기독교인들이 순교로 맞서며 반대하자 총독부는 교회 통합과 폐쇄를 지역별로 실시하였고, 이 정책은 1945년 8.15 해방까지 이어져 왔다.

2. 교회 통폐합과 기독교의 위기, 그리고 강원도의 현황



조선총독부가 '일본기독교 조선교단 규약안'을 제정하여 조선의 기독교교단이 일본기독교교단에 흡수되었다(1943년)

일본적 기독교로 전환하는 정책에 따라 예수교 장로회는 1941년 제30회 총회에서 동방요배, 황국신민서사 낭독, 일본국가 기미가요 제창, 신사참배를 실행하고 <일본기독교 조선장로교단>을 설립하였고, 감리회는 1941년 "내선일체의 원리를 실현하여 신체제에 순응함이 기독교인의 급선무"라 하여 '조선감리회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연맹>을 조직하였으며, 성결교단은 1943년 12월 해산의 비운을 안게 되었다.

당시 강원도의 현황은, 1943년 춘천중앙성결교회와 강릉성결교회, 춘천석사감리교회, 속초감리교회, 삼척제일감리교회 등 교회들이 폐쇄되었고, 강릉 대화정감리교회는 금정감리교회(현,강릉중앙교회)로 흡수 통합하여 교회가 줄었으며, 목사와 성도들 중 일부는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고를 겪고 순교하였다. 전국적으로 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도처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다. 강원도의 공식 순교자는 다음과 같다. (순교자)춘원교회 강종근 목사, 삼척천곡교회 최인규권사, 회양교회 권원호전도사 (형무소 복역자)양구감리교회 정기종목사, 김승극성도, 춘천중앙성결교회 김의용목사, 영월영흥감리교회 박병화목사, 장전감리교회 서기훈목사, 고성감리교회 이진구목사, 고성지방 박영환목사, 주문진감리교회 권성집목사 등이다.

3. 8.15해방과 교회 재 창립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 신탁통치안"이 발표되는 어수선한 정세에서 기독교의 각 교단 대표들(남쪽만의 교단 지도자들)은 1945년 9월 8일 서울 새문안장로교회에서 향후의 진로를 모색하는 "남부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모임은 일본에 아부하던 지도자들이 주동이 되어 교단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교단별로 주도권 문제 등으로 복집해지면서도 곳곳에 교회 재건과 재창립, 교회개척의 열정이 일어났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6.25사변을 겪게 되면서 또 한 번 교회의 시련기가 왔다. 이때 파손된 교회는 장로교152 감리교84 성결교27 구세군4교회이며, 순교자와 북한에 납치된 목회자는 232명으로 집계 되어있다.



일본에 가서 신사 참배한 기독교 지도자들 (해방 2년전)

〈다음호: 마무리 종합편 II〉

| 영혼의 양식

민족해방운동

- 행 1:6~8



정 덕 현 목사
(푸른초장교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고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론 일을 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때와 시기 즉 타이밍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기대하는 바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사에 따라 기다림의 양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속에 살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관심사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치던 3.1절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정치적으로 열성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세력 중에 셀롯인 중에 시카릿파는 로마와 그 앞잡이들을 벡주에도 살해할 정도로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은 당시 사람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연히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의 시기였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의 관심사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과 독립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언제'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언제'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니 아버지의 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오직 성령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민족해방과 독립은 정말 간절하고 성취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나라만의 해방과 독립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민족해방과 독립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분부에 따르면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될 때에야 고향과 나라와 온 세계를 해방과 자유의 나라로 변화시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먼저 고향을 지킬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민족해방과 독립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넘어 진정한 자유가 선포될 것입니다.

늘푸른신경외과 이전 개원 안내
Evergreen Neurosurgery Clinic
내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맑은머리 · 바른허리 · 부드러운 관절
033) 264-7582
춘천시 석사동 130-85 늘푸른빌딩 3층
(석사동 로데오 사거리)
"늘푸른 신경외과"가
춘천시 신사우동에서, 석사동 로데오거리로
이전 개원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봉사와 헌신으로
모든 이에게 아픔 없는 세상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김 기 동 집사 / 양 송 죽 집사 (춘천중앙감리교회)
진료과목: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의학박사 / 신경외과전문의
원장 김 기 동 배상
전,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과장 겸 교수
현,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백병원 신경외과 외래교수
치료적응증
◦만성두통 턱관절통증
◦퇴행성 우통 관절염
◦목의 통증 및 어깨통증 오십견
◦요통 특히 원인을 모르는 허리통증
◦각종 만성통증 및 원인을 모르는 난치성 통증
최신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
◦전신 적외선 체열 진단기 ◦전신 골밀도 측정기
진료안내
◦IMNS를 이용한 통증 클리닉
◦비타민 봉독 및 태반주사 클리닉 ◦뇌졸중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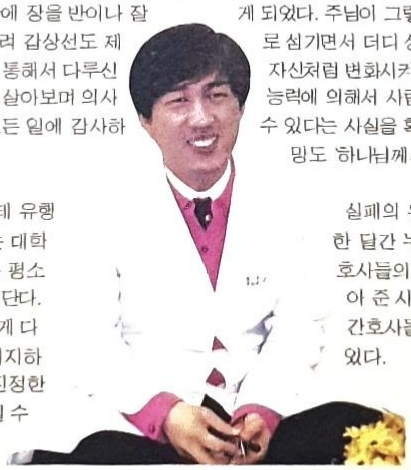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

가정의학과 고석연(예담교회, 성경번역선교회 운영이사) 집사편

봄의 아지랑이 그득한 오후 후평동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가정의학과 병원으로 들어섰다. 푸르고 쾌적한 느낌의 병원내부. 이곳에서도 봄 향기가 났다. 그리고 밝은 미소로 푸근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고석연 집사. 아주 멋진 인테리어에 김탄하는 말에 은근히 부인집사가 도왔다면서 자랑 섞인 겸손으로 담소가 시작되었다.

끝없는 실패

의사란 높은 자존심의 벽이 있을 것이란 편견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생각하게 할 정도로 편안한 고석연 집사.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실패담과 아픔을 진솔하게 열어보였다. 고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숱한 실패 속에 인내하면서 대통령에 오른 미국의 링컨이 생각난다. 그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던 대학에 떨어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가 원하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싫어하던 의대에 들어간 것도 결국 삼수 후에 일이다. 실패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대학생활 중 유급을 당했다. 그 후에 의사 국가고시도 떨어졌다. 인턴시험에도 떨어졌다. 결혼 후엔 28주 만에 태어난 첫 아이가 2주를 살고 세상을 떠났다. 실패는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것에서도 왔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장을 반이나 잘라내야 했고, 게다가 인턴생활 중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걸려 갑상선도 제거했다. 현재도 그는 담낭에 혹이 있다. 하나님이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루신 것은 자신의 교만이었다고 말하는 고 집사. 자신이 직접 환자로 살아보며 의사로서 노칠 수 있던 환자의 심정을 깊이 헤아릴 수 있기에 이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최근엔 이런 일이 있었다. 교회 전도사가 아파서 진찰하였는데 유행하는 장염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전도사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급성맹장수술을 받게 되었다. 고 집사는 평소 자신이 아마도 맹장염을 가장 잘 살필 줄 아는 의사라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 전도사의 맹장염을 놓쳤다. 주님께서는 "맹장도 이렇게 다양한데 네가 알긴 뭘 다 안다고 하느냐"며 질책하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다. 항상 나를 의지하라"고 하셨다며 진정한 전문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었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깊은 말들을 편하게 이어갔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복음전도를 통해 영혼까지 아울러 치유하는 의사"

주님의 긍휼

남들은 다 의대를 선호하겠지만 그는 아니었다. 고등학교의 적성검사에 의사만 빼고 다른 것은 다 점수가 높았다. 수학과 물리를 잘했기에 과학자가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의대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는 완전히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중에 의사가 되고 보니 의사가 자신의 진정한 적성에 딱 맞는 일임을 깨달았다. 사람 만나기 좋아하고 도움 주기를 좋아하는 성격에 이처럼 딱 맞는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자신보다도 자기를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결혼 초 원만하지 않던 부부사이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었다. 남편이 여러 질병으로 고통을 겪으니까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결혼 당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던 아내가 앞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제는 남편의 새벽기도를 체근할 정도란다. 수많은 실패 끝에 교회와 사역비전을 생각하며 병원 건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너무도 순조롭게 춘천에 병원을 개원케 하셨다.

실패의 유익

실패를 통해 받은 이익이 성공을 통한 것 보다 더욱 크다. 그는 모태신앙이다. 초등학교 시절 교회는 물론 노회 성경고사에서 상을 휩쓸었다. 성경지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했다. 하지만 유급 후 고향에 내려가 초등학교 때 함께 했던 친구들-때론 자신보다 성경을 잘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무시했던-의 신앙이 믈라보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되었다. 그때 처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신앙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급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지 않았더라면 알지 못할 일이었다. 그때 그는 "저도 저들처럼 믿음이 자라게 해 주세요"하고 겸손하게 엎드렸다. 하지만 좀처럼 변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같이 행동했지만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이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문득 돌아보니 과거와는 다르게 변해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바꾸고 계셨던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청년대학부장으로 섬기면서 더디 성장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저들도 주님께서 자신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한다.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도 주님에 의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위한 소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단다.

실패의 유익은 환자들을 대할 때도 나타났다. 인턴 중 큰 수술을 받아 한 달간 누워있으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살피게 되었고, 특히 간호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단다. 자신을 실제 돌보아 준 사람들은 동료의사가 아닌 백의의 천사인 간호사들이었다. 이후 간호사들을 귀한 동역자로 대하며 기회만 되면 격려를 아끼지 않게 되었다.

비전

고 집사의 비전은 춘천의 변화와 회복을 꾀하는 춘천성시화운동의 의료영역에서 작은 부분을 맡는 것이다. 그는 주께서 이런 부분을 맡기시든지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소원한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일 성경을 묵상한 것을 진료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돌보는 의사가 아니라 복음전도를 통해 영혼까지 아울러 치유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성경번역선교회 운영이사로 있는 그의 마음속에는 주께서 국내에서의 사역을 접고 의료선교를 떠나라고 명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숨어 있다. 하지만 주께서 국내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병원을 세워나가는 것 또한 그의 비전이다. 선교사를 보내는 자가 되든지, 선교사로 파송 받는 자가 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고석연 집사의 꿈이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연익,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체 환영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물의 특성과 정신요법

물의 증언

몇 년 전 빌표된 물의 결정을 연구한 에모토 마시루(일본인)의 사진은 물의 우주 순환을 단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전일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만물의 생명적 근원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가 찍은 사진과 그때의 상황에 대한 글을 토대로 살펴보면, 물의 결정 상태는 생명이 충만할 때 그림1 사진처럼 육각구조를 온전히 나타낸다고 한다. 특히 가장 원만한 형태의 육각구조는 사랑, 긍정, 연대감, 자기 책임 등 생명적인 경우다. 다음은 지혜라는 단어를 물에 보이준 결정들이다. 반면에 억압이나 분리, 파괴,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육각구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일그러지고 황폐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명적인 노력이나 정성은 파동적인 형태로 전달되어 원만한 육각구조로 변화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명이나 파동의 전달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우주의 인류정신을 완성해 나아가고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 곧 정신적 건강과 전인건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 단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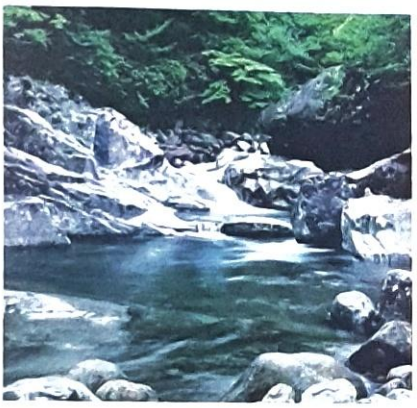


그림1. 사랑이라는 글자를 보여준 물의 결정. 육각의 아름다움이 경이적이다.





그림2 지혜(국어) 그림3 지혜(독일어) 그림4 지혜(영어)
그림2. 3. 4. 유리컵의 물에 지혜라는 단어를 써서 보여준 후 나타나는 결정체.



그림5 오염된 호수의물을 떠 사랑과 일치를 명상하고 기도한 후 변화된결정체.
*참조: 에모토 마사루 저, 양억관 역, 『물은 답을 알고 있다』(나무심는사람 2002)

물의 전일적(全一的) 특성을 이해하면서 물과 관련한 건강법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우리 몸의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육각구조와는 동떨어진 상태로 지내게 된다면 우리 몸은 점차 병들고, 허약해지며, 득소를 쌈게 된다. 반대로 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이 되며, 다른이의 질됨을 바라고, 적극적이 되면 보다 건강해지는 생명적인 물주머니(건강한 인간)가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택이 하루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정신건강은 바로 우리의 바른 생각과 삶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

물의 특성

1. 물질 순환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

지구에 물은 수소이온 때문에 모든 물질의 용매로 작용하여 분해와 결합 에너지를 제공한다. 생명체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물질적 변화와 상태(狀態) 변화를 위해서 메게되는 물질이 필요하며, 바로 물에 의하여 물질이동이 진행된다. 따라서 물의 이동 그 자체가 생명의 활동상(活動狀)이라 간주할 수 있다.

2. 물의 높은 탄성도에 따른 생명현상

물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범위(이를 물의 탄성공간이라 함)는 자율적 탄성공간을 만들고, 이 속에서 생명체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즉 봄이 되면 태양은 점차 열을 더하여 훈풍을 일으키고, 대지를 덥히면 생명들이 움트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계변화나 생명체의 생노병사 역시 물의 탄성한계 내에서 생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3. 물의 회귀성

동양철학의 오행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를 보면, 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에 이른다. 즉, 만물의 순환은 결국 물에 이른다. 물은 지구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의 물리 화학적 에너지 변화를 조정하면서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러므로 물은 모든 개체들의 모든 변화를 물이 회귀하는 탄성운동 범위 내로 포함할 수 있는 물질이다.

4. 생명수로 표현되는 물

성경에서도 물은 생명수로 비유되곤 한다. 물이 없는 곳에는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의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어떤 세포든지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는 구성분의 70%(신생아 때는 90%) 정도가 물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간은 사실 물주머니이다. 그리고 물이 있어야 영양 물질들을 녹여 몸으로 흡수할 수 있으며, 몸속에서 생성되는 독성물질을 물에 녹여 희석하여 배출한다. 이러한 수분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루에 8컵이상(2리터)의 물을 음용해야 한다.

5. 물의 전체성

우리 앞에 한 컵의 물을 가져다 놓고 생각해보자! 이 물은 우주가 생성된 대단한 순간에는 수소(H2)와 산소(O2)였을 것이고, 이 원소들이 날아들어 이제 막 시작되는 태양계와 지구에 도달해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 한 컵의 물은 우주 생성이래 긴 여행을 하였으며, 지구에 도달된 후 쥬라기에는 공룡(海龍)들이 놀던 호수에 담긴 물이었을 것이며, 우리들의 할머니가 먹고 마셨던 그것이었을 것이며, 그들의 몸을 이루었던 물이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하늘의 구름이었다가, 비가 되어 내려와 땅 속의 지하수나 하천을 흐르며 순환하다가 여기 컵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물은 단지 물을 담는 그릇형태의 변화에 따라 그 모양이 달리 보였을 뿐 물은 항상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상황에 응했을 뿐이다. 여기 한 컵의 물은 세상만물이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순환 시스템 안에 순환되는 태초 이래 자연의 증인이다.

[출처 : 대체의학 및 민간요법]

예 향

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소?"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나 할머니를 업어주었다. 업어 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해서 "나 무겁지?"라고 하였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할머니가 "왜?"하고 되묻자 할아버지의 대답.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 주라." 할머니가 갈 때의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다.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하고 물자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라며,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어딴 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렇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나님 자녀의 말에는 아름다운 물위가 담겨야 한다. [편집부]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좌입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강촌감리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사암중앙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석사감리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성침례교회	주천양 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산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안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앤투어
쏘인테리어	디티피아
김원기목문헌연구소	김 기 태
국민일보춘천지사	김 준 언
김 길 홍	김 현 철
김 영 명	민 병 언
박 동 환	성 기 온
신 성 균	신 종 협
안 미 에	안 정 숙
엄 필 남	오 홍 수
이 국 정	이 용 규
이 원 기	이 원 영
이 판 호	이 학 규
이 병 연	장 기 영
정 찬 복	조 은 제
최 경 용	최 상 호
최 지 광	한 희 현
황 병 찬	허 순 영
홍 성 운	홍 순 복





캠퍼스33

'캠퍼스33'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운동입니다!

한미준 통계(2005년)에 의하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 가장 전도를 왕성히 하는 곳은 단연 개신교이다. 그러나 불교, 천주교는 성장하고 있는 반면 개신교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연령구조는 역 피라미드 모양으로 한국 사회의 고령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의학 발달에 따른 수명연장, 전도 사역의 실패로 인한 새신자 감소, 저 출산에 따른 영유아 감소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며 청년 대학생들의 교회 이탈 현상도 한몫하고 있다.

역시 한미준 통계에 따르면 결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비율은 무려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 청년대학생 시절을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대학생 시절은 평생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때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하고 이끌어주는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교회를 떠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 학생선교단체 사역자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더구나 캠퍼스는 10, 20년 후 우리 사회의 미래를 투영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제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에 예수제자운동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7년째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캠퍼스33'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매년 60만 명이 되는 캠퍼스 신입생들이 3월 첫째 주에 캠퍼스에 첫발을 내딛는다. 뿐만 아니라 200만 명 넘는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생활하고 있다. 캠퍼스와의 첫 만남을 가지며 캠퍼스 문화를 접하게 되는 기독 새내기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캠퍼스의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있다. 그래서 캠퍼스33운동은 매년 3월 첫째 주를 '캠퍼스를 위한 특별 기도주간'으로, 3월 3일은 '캠퍼스 중보기도의 날'로 선포하여 지켜오고 있다. 3월 3일이 낀 주간을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특별 기도주간으로 기도 해주시되 가능하다면 3월 한 달 동안 이 거룩한 기도운동에 함께 한국의 모든 교회가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글 예수제자운동 춘천지구 구영록 간사]

아름다운 이야기

'나의 고백, 나의 찬양!'



영동극동방송진행자 최 사 라 사모(하라교회)

매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계획들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아 아쉬운데요 그러나 '행위 완전한 자는 이 땅에 없으니' 우리의 약함을 또 주님께 채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요.

올해에는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꿈들이 가정마다 가득가득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나라의 어둠이 물러가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역사의 한 토막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칠웅'가운데 하나인 '위'나라에 '공손앙'이란 사람은 자기나라의 왕이 자신을 믈라주자 넘리 인재를 등용하던 이웃 진나라의 '효공'을 찾아갑니다. 공손앙은 "지금 모든 나라들이 힘을 키워 세력 확장을 도모하는 때에 부국강병을 이루려면 먼저 낡은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라고 충언을 했지요 이 사람의 현명함을 한눈에 알아본 '효공'은 자기나라 사람도 아닌 이 '공손앙'을 크게 중용합니다. 지도자는 이처럼 인재를 볼 줄 아는 '혜안'이 있어야겠지요. 효공은 인재를 등용하고 그 실력을 인정한 후에는, 그 정책들을 간섭하지 않고 믿고 맡겼다고 합니다. 어진 임금과 지혜롭고 청렴한 신하로써의 신의, 이런 훌륭한 안목의 정치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공손앙은 '엄벌주의'와 '연좌제', '밀고 장려'등의 엄정한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는 법의 엄정함을 알리기 위해서 3자 길이의 나무를 '남문'밖에 세워놓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10금'의 상금을 주겠노라!"하고 말했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설마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상금을 5배로 올려서 '50금'을 주겠다고 했지요. 그때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손앙은 약속대로 상금을 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정부가 하는 말을 모두 신뢰하기 시작했답니다.

또한 공손앙은 엄격한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명했지요 그때 마침 '태자'가 법을 어겼는데, 공손앙은 "법률이 시행되지 못함은 윗물이 흐려서다!"라고 외치면서 태자대신 그의 후견인과 스승을 죽였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은 크게 긴장하고 법을 지키게 되었고, 산에는 산적이 없어지고 이웃 간의 싸움도 줄어들었으며,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는 저마다 공을 세우려고 용감해져서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되었답니다. 따라서 진나라는 내정이 정비되고 산업이 발전하며 국력이 크게 향상되었지요. 공손앙은 효공 12년에 다시 2차 개혁을 실시하여 도시와 마을을 모아서 '현'을 만들고 '현'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다스렸다고 해요. 또 도량형을 통일시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기초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처 정직하고 현명한 관리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인재를 알아보고 일할 수 있도록 키워준 임금인 효공의 인품과 덕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공손앙의 이런 지혜와 경륜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준법정신에 의한 정확한 법이 적용되었으면 해요. 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법망을 피해 이런저런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합니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않는 겸손하고 현명한 지도력 있는 효공같은 분이 올해에는 우리의 지도자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손앙처럼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아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행사안내

▣ 인재한국평생교육원 ▣

♣ 리더십 개발
1. 일시: 3월 5일(월) 개강 오후6시
2. 장소: 평생교육원(CBS3층)
※ 목회자, 교회지도자 필수과정

♣ 독서인재개발교실(아기피아)
1. 일시: 3월 13일(화) 개강 오후7시
2. 장소: 평생교육원(CBS3층)
3. 문의: 241-8801~2
011-372-9100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 24시간 상시대기 신고전화 1391번이 2007년부터 콜센터 129번으로 변경. 이에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9번, 아동 관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577-1391번 혹은 244-1391(~4)로 전화하면 이용가능

▣ 월드비전 ▣

♣ 제14회 월드비전 춘천지역 자원봉사자 어울림 큰잔치
1. 일시: 3월 6일(화) 오후 4시
2. 장소: 춘천베어스관광호텔 2층 소양홀
3. 대상: 자원봉사자 및 각 기관 단체장

♣ 월드비전 노인대학 개강식
1. 일시: 3월 8일(목) 10시30분
2. 장소: 복지관 3층 강당
3. 대상: 노인대학생
4. 문의: (033)254-7244

※결식아동돕기
제7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1. 기간: 3월~6월
2. 주최: 강원도민일보·춘천MBC·월드비전강원지부
3. 후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4. 성금사용처 계획
1) 강원도내(100,000,000원)- 강원도내 결식학생(지소득층 중식지원사업)
2) 국내(80,000,000원) 도시락 사업
3) 해외(150,000,000원)-아프리카 잠비아에 초등학교 건축사업(현판에 강원도이름명기)
5. 참여방법
1) 춘천지역은 5월 2일 13:00~16:00시까지 시청광장에서 성금모금실시
2) 성금계좌: 농협 204-01-078120
신한 515-01-038052
3) 후원문의: 033-912-2004, 3004

춘천시 장로교 연합회

한마당 축제와 사랑의 바자회

*일 시 : 5월 24일(목)
*장 소 : 고슴도치섬(위도)
*문 의 : 011-653-3595(서기: 윤대영목사)





※장로교회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광 고

칼 럼



교회는 위축(萎縮)되지 말아야 한다.

김 창 환 목사
온누리교회담임

1997년 IMF때이다.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 교회전등불이 한 개씩 건너 꺼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목사님께 왜 전등을 다 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경제도 어려운데 절전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교회로 들어온 나는 백성들의 얼굴이 어둡고 좌절감에 빠져있을 시기에 교회는 더 환하게 해놓아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교회당 전기공사를 하여 전등을 더 달고 밝게 해 놓았다.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IMF이후 국내교회가 후원을 끊음으로 인하여 국내로 많이 들아 올수밖에 없었다. 교회헌금이 줄어들어 가장 줄이기 쉬운 항목, 줄여도 항의 받지 않는 선교비를 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교회들이 많았다. 그때 우리는 선교사를 더 파송하고 후원 선교사를 더 늘렸다. 무료급식과 자원봉사활동을 확장하고 전도열정 성도들이 자원하여 전도에 힘썼다. 성도들에게 교회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선교비, 전도비, 구제비, 교육비를 가르치니 순종하여 따랐다. 아직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회가 사회적 환경이나 내부적 요인에 따라 위축되지 않는다.

위축(萎縮)은 시들어 쪼그라들거나 쭈그러짐, 이떤 힘에 눌려서 쪼그라들고 퍼지지 못함이다.

교회는 일본치하 36년의 입박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애국에 앞장섰다. 지금도 교회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비하발언의 글과 대적들이 있지만 위축되지 말고 교회가 잘못되었으면 개혁하고 성경적 변화를 수용하면 된다. 온전하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교회의 미리이신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완벽하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사회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일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 개인구원, 춘천복음화, 열방제자화이다. 교회가 사회적 이러움과 변혁과 들려오는 소리에 위축되지 말고 본질적인 말씀과 권능을 주는 기도사역에 힘쓰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겸손히 가야 할 길을 곧게 가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교회마다 1907년 부흥의 재현을 바라며 종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100년 전 사람이 아니다. 2007년 현재와 이후 미래를 보아야 한다. 100년 전의 부흥향수에 젖어있지만 말고 교회마다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전환해야 한다. 교회가 위축되는 것은 마귀의 비웸이다. 한사람의 목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 마귀는 미소 짓는다. 한 교회를 위축으로 몰아넣는다면 마귀는 춤을 춘다. 하나님은 작고, 큰교회 모두를 사랑하신다. 권능을 주신다. 쓰시려고 세우셨다. 교회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은 지금규모에 의하여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바르 그날에 교회마다 성적표를 받는 것이다. 그 날을 소망하며 교회여! 위축되지 말고 일어서라!

❀ 알려드려요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목동모임
일시: 3월 3일(토) 오후6:30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2) 학원복음화대회준비모임
일시: 3월 매주(토), 오후6~8시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학원복음화대회: 4월 7일, 삼사구시관)

3) 강원고,유봉여고 연합집회
일시: 3월 1일(목) 오후6:30 장소: 춘천중앙성결교회
문의: 244-5400/010-9287-5170 (cafe.daum.net/holykids)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새학기 OT 및 입학식
일시: 3월 초

2) 팀 미팅
일시: 각 캠퍼스별 진 1학년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3월 초)

3) 신입생 초청 전도잔치-여우사이
일시: 3월 중 예정 문의: 254-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브르스길라(중보기도)모임
춘천과 예수전도단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월) 오후 7~9시 장소: 춘천지부사무실(한신@ 맞은편)
대상: 기정주부(관심있는 자매님)

3) 캠퍼스 봄전도학교
일시: 3월 초 문의: 011-9901-0353 유서라

4) 직장인예수제자훈련학교 4기
학교진행: 4. 20.~9. 22. 치유기간: 6. 18.~22, 25.~29.
전도여행: 7월 중순 등록비: 15,000원, 회비: 110만원
장소: 일심장로교회(동면 장학리)
시간: 목, 금 - 저녁 6시 30분~11시 토요일 - 오후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IVF

1) 신입생 환영회
일시: 3월 19일(월) 오후 7시 장소: 미정

2) 강원대 전체에배
일시: 3월 6일(화) 오후 7시 장소: 법대 모의법정

3) 한림대 전체에배
일시: 3월 8일(목) 오후 7시 장소: 다산관

4) 전국대표간사회의
일시: 3월 19일(월) ~ 23일(금) 장소: 대구 성지훈련원
문의: 252-5200

◆JDM

1) KDTI 개강예식
일시: 3월 5일(월) 오후2시 장소: WDTI(세계제자훈련원)

2) 춘천지구 개강예배
일시: 3월 8일(목) 오후7시 장소: 온누리교회 본당

3) 시무엘서 사경회(주제 "다윗 스토리")
일시: 3월 19일(월)~22일(목) 장소: 춘천제일장로교회
대상: 빌씀을 사모하는 춘천지역 모든 그리스도인

4) 새내기 환영회
일시: 3월 29일(목) 장소: 춘천제일성결교회
문의: 252-3192 / 011-9058-3192

◆어린이전도협회

1) TCE 전도교사대학 1단계 모집 안내
일시: 오전반 3월 6일~29일 9:30~11시10분(화, 수 4주간)
저녁반 3월 6일~31일 6:30~10시10분
(마지막 날은 토요일까지 화, 목 4주간)
장소: 춘천지회 강의장(남내병원5층 추수홀)
모집인원: 기반 10명씩(선착순) 등 록 금: 100,000원
등록방법: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본회 제출

2) 세소식반 강습회
일시: 3월 5일(월)~ 5월 21일(월) 12주간
낮반: 10시~11시, 밤반: 7시~10시
장소: 춘천지회 강의장(남내병원5층 추수홀)
등록비: 3만원 당일등록가능
문의: 253-144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

◆GBT성경번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일시: 3월 5일(월) 오후7시 장소: 서울 심광교회
발씀: 강병관 선교사(브라질 아마존)

2) 춘천지부 비전기도회
일시: 3월 12일(월) 오후7시 장소: 예팀교회

3) 봄학기 위클리프스쿨 개강
일시: 3월 19일부터 매주(월) 오후7시 장소: 예팀교회
대상: 대학생 이상의 선교관심자 및 현신자
문의: GBT춘천지부 033)252-3927
김대원 간사 011-367-6085 (033@gb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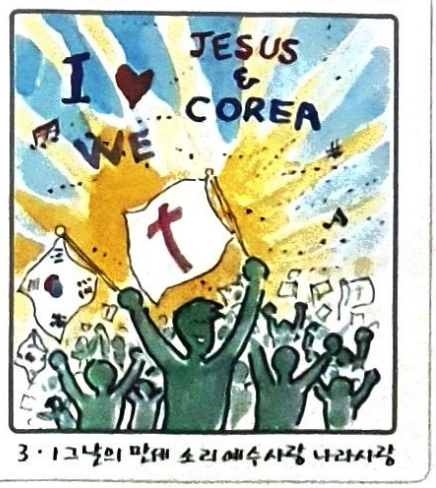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구봉산 산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두원 연수원 뒷산)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광이선교회

◆UBMK(올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헌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선교세계관학교(MPS) 12기 안내
강의: 3월 10일~5월 26일 매주 토요일 오후3:00~8:00
장소: 메드로선교센터 5층 추수홀
문의: 253-3399 H.P 019-9903-1148, 011-362-0926

◆춘천4기 어머니학교
강의: 3월 28일~4월 25일 매주 수요일 오전10시~3시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문의: 김희숙011-363-0926, 민병임018-325-1968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20년 개업11주년 기념세일
여자한복
남자한복 20~30%
두루마기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243-9019, 011-1788-8406 김기순 집사(춘일교회) (약사동 마을금고 옆)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참 좋은 은행,
새춘천신협 맡고 또 있을까요?
생계형, 비과세적금 www.cuonline.co.kr
가족사랑 교회사랑 적금
☑ 적금부금으로 부동 마련 및 속회교회 재정기금 출현 자동실행
☑ 성지순례 여행비용 마련 등등
최고 5.4% (3년만기)
◆ 가입대상 : 교인
◆ 적금한도 : 월 1만원 이상부터
◆ 적금기간 : 1년이상 3년이하 월 단위
◆ 이자지급 방법 : 만기 일시지급(예금보호대상)
◆ 교회기부금 출현 : 세후 만기 이자의 2%
(고객이 지정한 교회에 자동 기부 됨)
본점 : 춘천시 근화동 714-4 (방송통신대앞) 241-8383~4
지점 : 춘천시 중앙로1가 지하상가(원형광장내) 243-8211~2

■ 와이자연사랑회 자연정화운동





와이신협 산악회(회장: 김용겸)정도는 2월 6일(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명칭을 "와이자연사랑회"로 개정하고 새임원진을 구성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자발적 조직체로 활동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날 총회 후 3개조로 나누어 춘천 북산면 신포리 화악산 지류 광대봉 일대를 등산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다. 2004년 9월 14일에 창립된 와이자연사랑회는 와이신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 활동할 수 있는 개방적 조직이다.

■ 크리스천 코칭 세미나



춘천예수가족(회장:허문영박사, 통일교육원수석연구원)은 2월 9일(금) 오후5시30분 나눔교회에서 크리스찬인 코칭 조성협목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성협목사는 "크리스천 코칭이란 인품과 영적인 전인격적 변화로 통한 자기 성장과 교회 성장을 말하며 21세기 가장 중요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강연하였다.

■ 원종국목사 감독추대예배



춘천동지방은 2월 21일(수) 만천교회에서 원종국목사 동부연회 감독추대예배를 드렸다. 이날 김창수감독(신성교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원 목사는 항상 흠잆이 기도하는 목회자이며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2008년 동부연회 감독에 적합한 목회자라고 하면서 춘천동지방의 모든목회자와 교회들이 한뜻을 모아 협력할 것"을 말했다.
원종국목사는 춘천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목원대학교와 한영신학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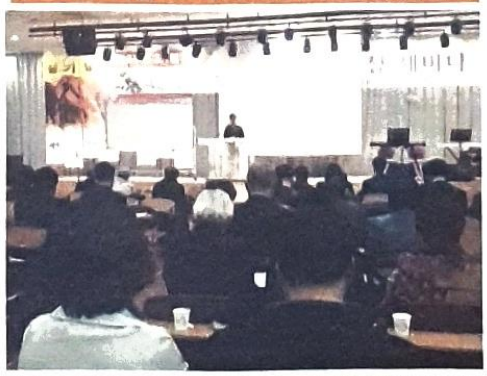
제7회 강원도국가조찬기도회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강원도지회(회장 허천장로)는 2월 24일(토) 오전7시30분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대관령성결교회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확정을 위한 제7차 강원도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했다.
춘천·원주·강릉·속초·동해·영월·정선·홍천·횡성 등 강원도 전역에서 모인 200여명의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들은 나라의 정치경제 발전과 평창을 비롯한 강원도 22개 시군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후 알펜시아사업본부로 이동하여 강원개발공사 박세흔사장의 현장설명과 함께 지난 IOC실사단에게 보고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강원개발공사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기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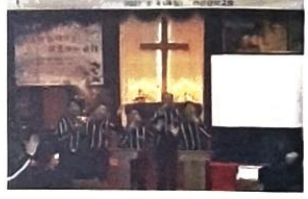
3·1절 기념 교역자 세미나 및 연합예배



교역자연합회(회장:한균목사)는 제88주년 3.1절을 기념하여 2. 28(수)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교역자 부부초청 세미나와 3.1절 연합예배를 개최하였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교역자부부 초청세미나에서는 "일제하 춘천지역 민족운동과 기독교"를 주제로 이덕주 목사(감신대학)가 강연을 하였다. 또 오후 7시 3.1절 연합예배에서는 윤철중목사(중앙성결교회 원로목사)가 "세 힘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인류의 평화와 남북통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와 춘천의 발전', '교회연합과 일치를 통한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특별기도회를 가졌다.

■ 목회자 강원2기(춘천10기) 아버지학교





2007년 2월 26일(월) 오전 11시 목회자 강원2기(춘천10기) 아버지학교가 가산감리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춘천지역의 목회자들 약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아버지학교는 3월 26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된다.

■ 춘천YMCA 제59차 정기총회



춘천기독교계 후원자 초청 오찬회 및 춘천YMCA 제59차 정기총회가 2월 26일(월) 11시 30분 춘천 베어스타운 봄내홀에서 개최되었다. 춘천 기독교계 교역자들과 춘천YMCA이사 정회원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YMCA 활동 소개를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기독인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YMCA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시민사회단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총회에서는 이사장 이창찬교수(강원대학교 교육학과)가 인임되었으며 부이사장 유영호, 사공정목사, 이사에 최균교수(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상운 베스트오피스 대표 등이 선임되었다.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김춘배 김미경

원고 투고 및 광고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나누기 원하는 곳

♣ 온라인, 자동이체, 전자금융으로 더 편리하게!!
♣ 대출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낮은 금리로!!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춘천와이신협
운교본점: 255-1007 (1층신협, 3층기독교연합회, 4층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비빌 2차 앞)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이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션·리·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 운전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